



정교회 주보



성 요아킴과 안나

마태오 제 11주일

자카리아 예언자(세례자 요한의 부친)

제 2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 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예언자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 I고린토 9:2~12 / 봉독서 211
- 복음경 : 마태오 18:23~35 / 115, B 4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요아킴과 안나

아이가 없는 것이 두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았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기 위해 항상 두 배로 하느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의로운 요아킴은 산에서, 공손한 안나는 정원에서, 눈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간청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인해서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 대사가 되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덕의 모본이 되는 부부입니다. 요아킴은 경건하고, 관대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였습니다. 안나는 하느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실을 하지 않았으며, 기도예 열심이었습니다. 두 몸이지만 하나의 영혼

과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당과 집에서 함께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평화롭고, 현명하게 두 개의 생각을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협력자로 하느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안나는 자신의 남편의 협력자가 되었고, 요아킴은 자신의 아내를 위한 지지자로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부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외동 딸이 세 살이 되었을 때 성당에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의 노년의 위로는 하느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느님의 선조 안나의 태중의 축복된 열매,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의 태중의 축복된 열매, 두 개의 축복입니다.

무한한 용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었다. “주님, 형제가 잘못을 행하면 일곱 번 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한다.”

성서에 기록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은 상대방에게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해서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야한다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오늘 비유의 말씀 (마태오18:23-35)에서 보면 임금님은 많은 빛을 진 종에게 빛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의 빛을 모두 탕감해 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빛을 탕감 받은 그 종은 자신에게 빛을 진 동료가 빛을 갚지 못하자 빛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다.

교부들의 말씀에 따르면 종이 임금에게 빛진 것은 여러 사람이 평생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빛이지만 그 종이 친구에게 빌려준 빛은 한 사람이 3개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빛이라고 설명한다.

빛을 탕감해 준다는 어원은 Συγχωρήσω 라는 그리스말로 ‘용서하다, 사면하다 또는 면제하다’, 라는 의미로서 임금은 빛진 종을 용서하였다는 뜻이다.

죄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



면되었기에 우리 또한 나에게 잘못된 이웃과 친구를 용서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하는 일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기도하나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것처럼 일곱 번씩 일흔일곱 번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수도사들의 생활을 통해 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도사들은 이웃이 지고 있는 빛이나 죄를 마치 자기 스스로가 지은 잘못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 이처럼 남의 죄와 빛까지도 본인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는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면제받고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이나 친구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과 진 빛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때 비로소 내가 지은 죄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야고보스 찰리키스 성인 (1920-1991) 8(생애 1)

야고보스 성인은 지난 세기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가장 거룩한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며, 지금도 성인으로 말미암은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은 1920년 11월 5일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서 9명의 자녀 가운데 한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여서 형제 9명 가운데 오직 3명만이 유아기를 넘겨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25년 성인의 가족들은 그리스의 에비아 섬 북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성인은 마을에 있는 성 빠라스게비 성당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성인은 어려서부터 수도생활을 갈망했습니다. 성인은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수도자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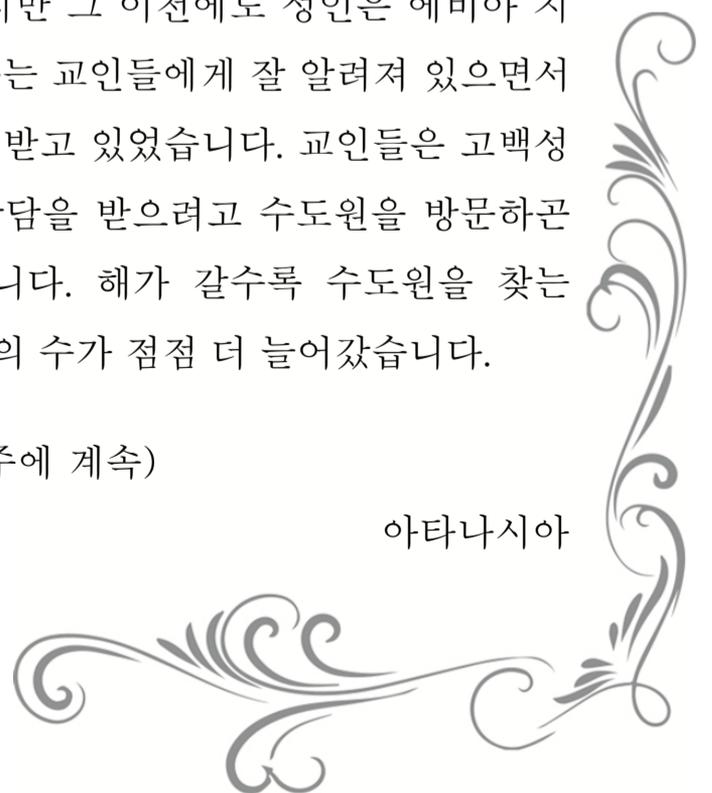


성인은 일곱 살에 성찬예배 본문을 전부 암기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성인의 건강은 손상되었으며, 독일군에 의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공산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전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951년에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나자, 성인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인은 에비아 섬에 있는 성 다비드 수도원으로 갔는데, 당시에 그곳에는 3명의 수도사만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환경은 아주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2차 대전 동안에 수도원이 버려졌었으며, 시설은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2년 11월 31일에 수도서원을 한 성인은 그 다음 달에 보제서품을 받았으며, 다시 이틀 뒤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975년에 성인은 수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성인은 에비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고백성과 상담을 받으려고 수도원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수도원을 찾는 교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세계총대주교청 관할 전체 주교모임

지난 9월 1~3일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세계총대주교청 관할 전체 주교모임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께서는 이 모임에 주제 발표자로 선정이 되어서(코로나 상황으로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청에는 가지 못함) “21세기의 극동아시아에 복음 전파”라는 주제를 영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 모임은 모든 주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의 교회와 사회의 여러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 그리스 화재 피해 기금

이번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다. 비와 화재로 큰 피해가 생겨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큰 화재로, 특히 에비아섬 전체가 주민들이 피난 가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당들도 화재에 다 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교구에서는 성직자회의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정교회에 도움

을 준 그리스정교회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재로 전소되어 대리석 기둥들만 남아있는 성당의 복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자 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500-073554 /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헌금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의 추위와 올해 비로 인해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어 완공되어질 예정입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건축헌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 가족이 천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공사대금이 충당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크리스토퍼 신부 가족 귀국

여름 동안 미국 고향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신부와 가족들이 지난 8월 27일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성당의 사목을 위해 수고해주시길 것입니다.



주간예식



9월 8일(수) 성모 탄생 축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